

• 3강 항상 이기는 그리스도의 포로들(고후 2:12~3:6)

읽을 말씀: 고후 2:12~17

오늘의 포인트

- ‘그리스도의 포로’ 정체성을 이해하기
- 그리스도의 포로됨의 자격은 어디서 오는가를 이해하기

고린도후서의 구조

2:14~7:4은 삽입부—복음의 부요함을 놀랍게 보여주는 긴 삽입부

흐름상 2:13은 바로 7:5로 이어진다.

(2: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7: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의 목회적 염려

(2:12~13)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 에베소에 있을 때, 디도 편에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중간 편지를 찢어지는 가슴과 눈물로 써서 고린도에 보냈다.
- 바울의 마음은 그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가 염려하던 중,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
- 드로아에서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인들이 자신의 편지에 보일 반응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2:13).
-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렸다.
- 바울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를 떠나 속히 디도를 만나볼 생각으로 마게도냐로 건너 갔다(2:13).
- 바울이 참 복음의 사역자라면 자기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린 곳을 떠났다면 흠이 될 수 밖에 없는 일이었음에도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염려를 솔직하게 표현한다.
- 이것은 사도의 교회를 위한 목회적 염려였다.

디도를 만난 바울

(7: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 마게도냐에 간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7:6~7)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 드디어 디도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서야 위로와(7:6) 기쁨을 얻었다(7:7).

그리스도의 개선행진(2:14)

(2: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승리주의 망령

-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셨다.
- 십자가의 승리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전리품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신자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한다.

그러나

- 신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가장 잘 증명하는 길은 그분이 확보해 두신 열매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 주님께서 승리의 결과를 보장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바울은 승리한 전사인가, 포로인가?

14절에 대한 공동번역의 번역--‘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배경--로마제국의 정복전쟁과 개선 행진

- 개선행진의 선두에는 승리한 장군이 탄 화려한 개선 마차
- 이어서 전쟁을 치룬 영웅적 군사들
- 그 뒤에는 정복당한 포로들과 전리품들
- 도로변에는 피워 놓은 수많은 향들이 진동

바울 사도가 의미한 것--‘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 나는 이 향기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들어와 있다.
- 나는 선두 마차의 그리스도 옆에서 자랑스런 승리의 공을 세운 장수가 아니다.
- 나는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포로요 적장으로선 선두 마차의 맨 뒤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 정복당한 적장들은 개선 행진의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승리하는 삶’이다.
- 신자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리고 결국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다.

사도의 메시지

- 나의 약함과 고난 그리고 죽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온 세상에 전하는 수단이다--**고린도후서 전체의 논지**
 - 1:1~11에서 바울 사도가 묘사한 고난,
 - 4:8~12과 6:9~10에서 묘사한 자신의 상황

- (마 16:24)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 약함, 그리고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방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2:14b)

(2:14b)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 우리의 약함과 죽음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것이 복음이요, 그 향기다.
-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포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 성도가 삶과 행동으로 보여줄 고백: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하셨다. 나는 그리스도께 항복했다. 그에게 붙잡혔다.”
-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께 붙잡혔으며 그분께 항복한 존재이며 이제는 우리의 인생과 목숨과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세상의 방식,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

- 성공과 부와 학식과 명예와 업적을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일 수 없다.
- 형편이 어떻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포로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다.
- ‘청부론’이나 ‘고지론’은 그 정신에 있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생명과 죽음을 가져오는 향기(2:15~16)

(2:15~16)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의 이중적 기능

- 이것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향기다.
- 구원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 그러나 이 향기는 어떤 이들—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이들—구원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 이 냄새는 포로들이 풍기는 땀과 피의 냄새가 아니라 포로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을 축하하는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복음이다.
- 이 복음은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 십자가의 복음이 포로들의 존재를 통해서 묻어나온다.
- ‘우리는 십자가의 포로다’라고 포로들의 존재가 선포할 때, 흘러나오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포로된 사람 자신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십자가 복음이 하는 일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을, 사람들을 둘로 가르친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부르심(2:16b)

(2:16c)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

“포로의 부르심을 감당하기는 심히 어렵다. 누가 과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것은 고난 당하는 포로로서 그리스도의 행렬을 따라야 하는 부르심이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는가?

아무도 자기 능력으로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대답은 3:5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2:17).

(2:17)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

- 이들은 당시 고린도교회에 와있던 거짓 사도들
-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 그들은 당시 포도주에 물을 타서 팔아 수익을 더하게 하던 부도덕한 포도주 상인들과 같은 장사꾼들이다.
-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사람들이다.
-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물을 타지 않는다.”
 - ‘순전함으로’,
 -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 ‘하나님 앞에서와’,
 -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
-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태도에서 자신을 거짓 사도들과 구별한다.
- 분별의 기준--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그것을 전하는 태도

바울이 제시하는 추천장(3:1~3)

(3:1~3)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떤 사람처럼(=수많은 사람)’ 나에게 추천장을 요구하겠느냐? (3:1)
- 당시의 순회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추천서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디도를 추천하곤 했다.
- 그러나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 사도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3:2)

(3:2)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에 쓰여진 추천장이고 이 추천장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열 두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듯이 내 마음에 새겨진 고린도 교인들의 이름들을 보라.”
-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아비의 마음’(고전 4:15)을 가졌고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 깊이 근심하였다(고후 7:4).
- 그의 이런 태도는 누구나 알 수 있을만큼 분명했다.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나 고린도교회 때문에 심령이 편치 못하여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3:3)

(3: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 고린도교인들은 바울 자신의 편지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받은 추천장’이다.
- 사도의 궁극적 추천자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영으로 쓰신 추천장이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다.
-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사도직 증명의 부담을 자신의 어깨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어깨 위로 옮겨놓는다.
- 만일 바울이 가짜라면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지고 구원을 얻은 고린도 교인들도 가짜가 된다.

바울의 확신(3:4~6)

(3:4~6)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같은 확신”(3:4)의 내용 = 2:16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

(2: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는 곳마다 나타내야 하는 부르심을 누가 과연 감당하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의 자격과 능력과 만족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3:5).

(3: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만족은’ = ‘우리의 능력/자격은’

사도의 능력이나 자격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기 힘, 자기 육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가고 새언약의 직분을 행할 자는 없다.

부적격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애물이 아니라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다.

- 옛언약을 체결했던 모세의 이야기
 -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부적격성을 계속 언급했었다(출 4:10~17).
 -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간 보여준 탁월한 지도력은 결국 모세의 부적격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한다.
- 사사 기드온(삿 6:15이하)
- 이사야 선지자(사 6:5이하)
- 예레미야 선지자(렘 1:6)
- 에스겔 선지자(겔 1:1~3:11)
 -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적격함, 자격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다면, 아무도 자신의 부적격성이나 자격없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
- Scott Hafemann, “모세의 소명은 바로 그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입증하며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자격의 원천이었음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 우리의 부적격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장애물이라기 보다는 필요불가결의 조건이다.
- 이것이 그리스도의 포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다.

새 언약의 직분은 글자가 아니라 영으로 한 것이다(내적 변화).

(3: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적합하게 만드셨다/자격이 있게 하셨다’
- 그리스도인을 설명해주는 방식
 - ‘나 잘났다’고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다.
 -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신 방식 →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 것이다.
- 고린도 교회가 요구한 것은 글자로 쓴 추천장 → 글자로 쓴 추천장이 아니라, ‘너희 육의 심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쓰신 편지인 너희’(3:3)

‘율법 조문’ = 단순히 글자를 의미 = 돌판에 기록한 율법 곧 옛언약

새언약 =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것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 ≠ 율법 자체 또는 율법(롬 7:12)

(롬 7:12)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 율법 조문 = 돌비에 기록한 글자 자체 → 아무 힘이 없다.
- 새언약 = 마음판에 성령으로 율법을 새겨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심(내적 변화) → 새로운 피조물,
 - 더 거룩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 새언약의 직분은 내적 변화를 만드는 직분
 - 바울의 부적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 가는 곳마다 성도들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됨의 증거, 살아있는 추천장, 새 언약의 직분이 가지는 능력이다.

오늘의 적용

- 오늘날의 거짓 목사들을 분별하라. --그들의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태도
-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갖춘 자를 찾지 않으신다.
 - 스스로 부적격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행진의 맨 뒤에 끌려가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기셨고 포로로 잡으셨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서 나타내게 된다.
- 교회는 포로공동체다.
 -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나를 보라”가 아니라 “저 앞에 나를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보라.”
 - 시간, 재물, 학식, 경험, 자녀 모든 것이 다 정복자 그리스도의 것이다.
 - “나의 고난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된 증거다”